

# “사회적 책임 다하며 신뢰받는 기업 매진”

### 보해양조,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서 국무총리상 수상 대규모 통계조사 적극 홍보 등 국가 통계 발전 공로 인정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더욱더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일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통계청 주관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통계의 날’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통계 업무 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1985년 9월1일 제정됐으며, 2009년부터는 통계법에 근거한 정부 기념일로 격상됐다.

기념식에서는 이형일 통계청장, 김동욱 한국 통계학회 회장 등 통계 관련 인사 1천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보해양조를 비롯해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통계작성기관, 응답 사업체, 가구 부문 등 통계유공자와 단체가 표창을 받았다.

보해양조는 이번 평가에서 ▲1982년부터 통계청에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 자료 제공 ▲사업체 시설 견학을 통한 통계 실무교육 기회 제공 ▲자사 제품을 이용한 대규모 통계조사 홍보 등 통계 조사를 활발히 지원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는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받아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데이터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해양조가 통계청 주관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30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이희종 생산기획본부장이 회사를 대표해 참석, 상을 받았다. (보해양조 제공)

한편, 보해양조는 목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광주·전남 대표기업으로, ‘착한 술, 좋은 술 만’을 원칙으로 삼고 국내 주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정은솔기자



## 송원대, 제2회 총장기 생활주짓수대회 성료

송원대학교는 2일 “지난달 31일 제1회 대한체육회장기·제2회 송원대학교총장기 생활주짓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200여명의 참가 선수와 내외빈 등 300여명이 참석해 열띤 경연과 응원을 펼쳤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대한주짓수회와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학 주짓수팀을 창단한 송원대학교가 지역의 주짓수 거점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자

최수태 송원대 총장은 “대한주짓수회와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돼 뿌듯하다”며 “송원대 스포츠지도학과와 우수한 재학생들과 함께 지역과 스포츠 발전에 한마음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경민 송원대 주짓수 감독은 “2023년 주짓수 창단과 초대 대회를 통해 많은 선수들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대한주짓수회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의 거점 주짓수 대표 대학으로 도약해 학교와 지역을 빛낼 수 있는 선수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기자

## 목포고용노동지청-안전공단-목포역 ‘안전문화’ 협약

목포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최근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목포역과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역사 내 각종 시설물에 안전 메시지를 담아 생활 안전문화 확산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은 지난 5·7월, 목포 여객터미널, 목포 해상케이블카 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 협약에 이어 남만항구 도시로 관광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 번째 업무 협약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기관장들은 “안전 문화가 연간 약 180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목포



역을 통해 호남선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스팀들길 기대한다”며 “각 기관이 역량을 모아 안전 문화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뜻을 모아 가자”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 농협 담양군지부-농어촌공담양지사 ‘쌀 소비 촉진’ 협약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농협 담양군지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에는 이기복 농협 담양군지부장을 비롯해 홍성용 농정지원단장, 김건영 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서원신 농지은행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담양 쌀 소비 촉진 및 전 직원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건영 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은 “협약을 계기로 쌀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쌀 가격 회복과 농가 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이기복 농협 담양군지부장은 “최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쌀 가격 하락이 농가의 경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쌀 소비 촉진에 늘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담양=정승균기자



## 전남농기원-필리핀 농림부 BPI ‘국제교류’ 협력

필리핀 농림부 산하 BPI(식물생산국) 관계관 일행 15명이 최근 이틀간 농업기술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 전남도를 방문했다.

2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교류 협력은 스마트 농업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 공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종 개량 연구 협력, 농업기술 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BPI 부처장이 전남을 방문해 농업기술 교류를 희망하면서 양국 간 축적된 농업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위한 솔루션 개발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필리핀 지방자치단체 시발로안과 사라고사, 록반시장 등 일행은 전남지역의 모범적인 농촌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곡성군농업기술센터와 미실란의 쌀 가공공장, 구례 자연드림파크의 식품가공 공장 등을 견학하고 순천시역 고온기오이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전남을 대표하는 강진의 ‘탐진들’ 스마트팜 단지 견학과 글로벌 농업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김행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양 국가 간 농업기술 협력이 강화되고 글로벌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리핀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원이 보유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지혜련 동강대 교수, 퇴임식서 학교 발전기금 기탁

동강대학교는 “최근 지혜련 간호학과 교수가 30여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며 ‘학교를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퇴임식에서 지 교수는 이민숙 총장에게 학교 및 간호학과 발전 기금을 각각 전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지혜련 교수는 “지난 1985년 동강대와 인연을 맺고 간호사 등 보건 분야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과 함께 했다. 30여년간 동고동락한 교수 동료들과 사랑하는 제자들 덕분에 즐겁고 신명나게 일했고 퇴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



다”며 “앞으로 동강대 발전을 위해, 제자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 관심을 갖고 돕겠다”고 밝혔다. /김대기자

## 영광군, 혈액 수급 안정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동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최근 영광군이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전 군민이 함께하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진행됐으며, 공무원·군민·유관기관·사회단체 임직원 등 총 110명이 참여해 헌혈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덕희 영광군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헌혈 행사에 참여한 영광군민 및 공직자 등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단체인혈을 실시하고, 지역 내 헌혈 문화 확산과 헌혈 인구 저변 확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기준 광주·전남지역 혈액



보유량은 64일분 (혈액형별 ▲O형 45일분 ▲A형 64일분 ▲B형 86일분 ▲AB형 64일분)으로 총 혈액 보유량은 보건복지부 기준인 5일분을 웃돌지만 혈액형별로 볼 때 O형은 5일분 미만으로 사·도민의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성학기자

## ‘9월 5·18민주유공자’ 故 김용대씨



9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故) 김용대(사)씨가 선정됐다.

2일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김씨는 1952년 4월15일생으로, 장교로 복무하다 1980년 1월 예편했고 5월 민주항쟁 당시 전남대에 재학 중인 조카가 걱정돼 시위현장을 가던 중 차에서 떨어지는 소년을 구하려다 총격을 받고 척추를 관통당해 하반신 마비 증상이 생겼다.

이후 부상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으며 진통제와 종교 등을 통해 휴유증을 견디다 지난 2004년 사망했다.

5·18민주묘지 관리소 관계자는 “故 김용대씨는 제1묘역 5구역 22번에 잠들어 계신다”며 “민주묘지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 순천대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성료

국립순천대학교는 “최근 학내 파루홀에서 전남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2일 밝혔다.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대입 전형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했다.

행사는 ‘대입변화에 따른 중·고등 입시 가이드’를 주제로 ‘교육대기자TV’ 방종임 대표의 특강과 순천대 대입전형 정보 공유 및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특강에서는 다양한 대입전형 특성과 준비 방법, 최신 대학입시 정책, 효과적인 학습 전략 그리고 고교 선택 요령 등 자녀들의 진로 설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강희순 순천대 입학처장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유용한 정보가 진로·진학 결정에 큰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대학으로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과 밝은 미래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양홍렬기자



##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청년정책 우수’ 광산구청장 표창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광산구로부터 청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구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광산구가 지난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년대전원센터’의 직장 체험 프로그램에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가 참여해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13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지역본부의 업무를 소개하고 취업 멘토링 등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윤중선 국민연금 광주본부장은 “직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보면 과거 내 모습이 떠올라 책임 있는 자세로 공공기관의 인제 상 및 면접 요령 등을 알려주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청년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태호기자

## 결혼

▲오찬(중앙강철 대표·전 국제토탈리3710지구 총재)·유미숙씨 장남 민석군, 故 안판원·김현숙씨 장녀 송희양=7일(토) 오전 11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이주연(안병하기념사업회 사무국장)·김순영씨 아들 경용군, 김홍기·김향지씨 딸 다연양=7일(토) 오후 5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